

총평

보편적으로 쉽게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 수험생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문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한 ‘공무원 국어에서 출제 가능한 25유형’으로 문항을 분석하면 그 접근법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유형은

유형1. 언어와 국어에서 10번 (1문항)

유형3. 이론 문법에서 6번, 7번 (2문항)

유형4. 한글 맞춤법 / 표준어에서 9번, 18번(2문항)

유형7. 올바른 문장에서 1번(1문항)

유형9. 한자어와

유형10. 문맥적 의미의 혼합문제 2번, 5번, 12번, 15번(4문항)

유형11. 고사성어에서 17번 (1문항)

유형12. 높임법과 높임말에서 8번(1문항)

유형13. 내용전개방식에서 4번(1문항)

유형15. 글의 구조적 전개에서 3번(1문항)

유형17. 비문학의 독해 11번, 20번(2문항)

유형20. 현대시 13번,14번(2문항)

유형21. 현대소설에서 19번 (1문항)

유형22. 희곡에서 16번(1문항)

와 같이 문법보다는 어휘와 독해 쪽이 강화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수험생들 중 평소에 같고 닮은 실력으로 국어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은 시험 후 5문제 정도의 실수를 느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학생들은 3문제 정도의 실수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문법 측면에서는 기본개념의 중요성이 나타났고

어휘 측면에서는 독해를 통한 문맥적 의미의 중요성과

독해의 문학, 비문학 지문을 통하여

독해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설을 통하여 스스로의 접근방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접근 방식의 재정립과 지방직, 서울시, 7급과의 연계는 4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웅진 패스원 1101호에서 해설 강의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②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쓴다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다.
- ③ 시민 각자가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 ④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혁명국어 기유문 ‘07. 올바른 문장(문법)’유형이다.

문장의 구성 성분과 내용상의 호응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②

‘우리가 기름을 아껴 쓴다면’의 가정 전체 문장과 ‘유지할 수 있다’가 내용상으로 호응되고 ‘자원의 낭비도 막고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의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오답피하기:

①

‘와/과’로 이어지는 문장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가능하나 ‘인식의 변화’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자연스럽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③

㉠ ‘접근하다’는 ‘~에’라는 부사어가 필요하며, 따라서 필요없는 동사 ‘대해’가 쓰이고 있다.
참고로, ‘대해’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1 . 「...을,(...과)...을」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마주 향하여 있다.

2 . 「...에/에게 -게,...을 ...으로,...을 -게」 (‘...으로’나 ‘-게’ 성분은 ‘...처럼, -은/을 듯이’
따위의 부사어나 ‘-이/히’ 부사로 대체될 수 있다) 어떤 태도로 상대하다.

3 . 「...에」 (‘대한’, ‘대하여’ 꼴로 쓰여)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외래문화에 대한 관심

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

학문에 대하여 묻다

중, 3의 쓰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접근할 수 있고’의 대상은 ‘환경 정보’이지만 ‘참여 할 수 있는’의 대상인 부사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있다.

㉢ 전체 주어인 ‘시민 각자가’ 와 서술어인 ‘갖도록 해야 한다’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시민 각자가 환경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④

‘와/과’로 이어지는 문장 성분의 호응이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쾌적한 교실환경’은 ‘조성하기’와 호응하지만 ‘학생들의 건강’은 ‘조성하기’와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 청정기
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 ① 그는 장사꾼의 손에 놀아날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
- ② 제삿날 손을 치르고 나면 온몸이 쭈신다는 사람들이 많다.
- ③ 마감 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더 이상 손을 늦출 수가 없다.
- ④ 대기업들이 온갖 사업에 손을 뻗치자 중속기업들은 설 곳을 잃게 되었다.

2. **혁명국어 기유문 ‘10. 문맥적 의미’ 유형이다.**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어휘의 다의적 의미와 동음이의어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④

보기에 제시된 ‘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이다.

④번의 ‘손’의 의미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참고로 ‘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 1.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 2. 손가락.
- 3. 일손.
- 4.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 5.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 6. 사람의 수완이나 꾀.

오답 피하기

① ‘손’의 의미는 ‘사람의 수완이나 꾀’의 의미로 쓰였다.

그는 장사꾼의 손에 놀아날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

②의 ‘손’의 의미는 <보기>의 ‘손’의 의미와 다른 동음이의 관계이다.

‘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 2.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
- 3. 지나가다가 잠시 들른 사람.
- 4. 손님마마(‘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또한 ②번은 ‘여러 손님을 대접하다.’라는 ‘손(을) 치르다’의 관용적 표현이다.

③의 ‘손’은 ‘일손’의 의미로 ‘긴장을 풀고 일을 더디게 하다.’라는 ‘손을 늦추다’의 관용적 표현이다.

3.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또한 실천적 측면 가운데 내적 측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선(善), 외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의(正義)이다.
- 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념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마련이다.
- ㄷ. 흔히들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로 진리, 선, 정의를 언급하기도 한다.
- ㄹ. 진리는 인간 생활의 이론적 측면으로 나타나고 선, 정의는 인간 생활의 실천적 측면으로 나타낸다.

- ① ㄴ - ㄷ - ㄹ - ㄱ
- ② ㄴ - ㄹ - ㄱ - ㄷ
- ③ ㄷ - ㄴ - ㄱ - ㄹ
- ④ ㄷ - ㄹ - ㄱ - ㄴ

3. 혁명국어 기유문 ‘15. 글의 구조적 전개(문장구조)(독해-비문학)’ 유형이다.

글의 전개순서는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순서로 전개되며 실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는 답안에 제시된 선택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 ①

선택지에 제시된 첫 번째 문장은 ‘ㄴ’과 ‘ㄷ’으로 먼저 이 두 문장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먼저 ‘ㄴ’을 보면 ‘인간이라면 ~ 이념과 가치를 ~’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ㄷ’은 ‘~숭고한 이념이나 가치로~’, ‘진리·선·정의’가 나타나 있다.

‘ㄴ’의 이념과 가치가 ‘ㄷ’의 이념과 가치로 연결되며 ‘진리·선·정의’가 제시되는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문장 순서에 어울린다.

따라서 이미 답은 ①번으로 선택된다.

그리고 ‘ㄹ’을 보면 ‘진리’는 ‘이론적 측면’으로 ‘선·정의’는 ‘실천적 측면’으로 나타나고 다음 문장 ‘ㄱ’에서 ‘실천적 측면’을 ‘내적’과 ‘외적 측면’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① ‘ㄴ - ㄷ - ㄹ - ㄱ’이 자연스러운 전개순서이다.

4.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옳은 것은?

프레임(frame)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정치에서 프레임은 사회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고자 수립하는 제도를 형성한다.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이 모두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변화이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프레임은 언어로 작동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요구된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우선 다르게 말해야 한다.

구제(relief)라는 단어의 프레임을 생각해 보자. 구제가 있는 곳에서 고통이 있고, 고통 받는 자가 있고, 그 고통을 없애 주는 구제자가, 다시 말해 영웅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웅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방해하는 악당이 된다.

- ① 인용
- ② 분류
- ③ 예시
- ④ 서사

4. 혁명국어 기유문 ‘13. 내용전개방식(진술방식)’유형이다.

독해 유형으로 기본적인 서술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글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글의 대상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전개방식을 찾을 수가 없다.

정답: ③

글의 대상인 ‘프레임(frame)’을 설명한 글이다.

세 번째 단락에 서술방식이 나타나있다.

‘구제(relief)’를 예로 하여 ‘프레임(frame)’을 설명하는 글이다.

오답피하기

①인용: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씀.

②분류: 1.종류에 따라서 가름. ‘나눔’으로 순화.

2.유개념의 외연에 포함된 종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④서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주로 유기적 구성인 소설에서 쓰임)

5.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함 것은?

집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욱 익숙하다. 이 말은 ‘집은 혹은 건축은 단순히 기술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세우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짓고 밥을 짓고 짓듯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일련의 사고 과정을 통하여 뭐가 만들어내 가는 것’이란 뜻이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건축을 가리켜 영조(營造)라 일컬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본인들이 메이지 시대 때 만든 ‘건축’이라는 말의 뜻으로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축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 건물의 (㉠) 환경을 뜻한다면 건축은 그것을 포함하는 (㉡) 환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

- | | |
|---------------|--------------|
| ① 경제적(經濟的) | 문화적(文化的) |
| ② 물리적(物理的) |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
| ③ 현실적(現實的) | 이상주의적(理想主義的) |
| ④千篇일률적(千篇一律的) | 다원론적(多元論的) |

5. 혁명국어 기유문 ‘09. 사전적 의미(한자어)’와 ‘10. 문맥적 의미’의 혼합 유형이다.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와 연결하는 문제로 독해력과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까다로운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정답: ②

㉠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적, 구조적인 측면’을 통해

㉡의 의미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통하여 뭔가 만들어내 가는 것’,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뒤의 환경과 ‘그것을 포함하는 (㉡) 환경’의 문장 구조로 보아 ㉠은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고 ㉡은 그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형이상학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經濟的): 1.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에 관한. 또는 그런 것.

2.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또는 그런 것.

문화적(文化的): 1.문화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

2.높은 문화 수준에 있는. 또는 그런 것.

물리적(物理的): 1.물질의 원리에 기초한. 또는 그런 것.

2.신체와 관련되어 있거나 신체를 써서 폭력을 행사하는. 또는 그런 것.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형이상학에 관련되거나 바탕을 둔. 또는 그런 것.

현실적(現實的): 1.현재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또는 그런 것.

2.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따위를 우선시하는. 또는 그런 태도.

이상주의적(理想主義的): 현실은 무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 또는 그런 것.

千篇일률적(千篇一律的):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한. 또는 그런 것.

다원론적(多元論的): 다원론에 기초를 둔. 또는 그런 것.

6. 밑줄 친 것 중 보조사인 것은?

-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 사 왔다.
- ②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 ③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 ④ 나는 거칠 것 없는 바다의 사나이다.

6. 혁명국어 기유문 ‘03. 이론 문법(문법)’유형이다.

기본적인 ‘조사’의 종류를 묻는 문제로 학생들의 혼동이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문장 속의 ‘조사’의 역할보다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기본적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④

‘~는’

- 1.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2.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3.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의 의미로 쓰이는 보조사이다.

오답피하기

① ‘~에서’의 의미

- 1.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2.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3.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와’의 의미

- 1.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2.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3.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③ ‘~로서’의 의미

- 1.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2.(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7.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만으로 묶인 것은?

영희는 책을 집에 놓고 학교에 갔다.

- ① 놓-, 가-
- ② -고, -쓰-
- ③ 영희, 책, 집
- ④ -는, -을, -에

7. 혁명국어 기유문 ‘03. 이론 문법(문법)’유형이다.

형태소의 종류 중 ‘자립/의존 형태소’, ‘실질/형식 형태소’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①

주어진 보기를 형태소로 나누면

영희~는~책~을~집~에~놓~고~학교~에~가~쓰~다
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자립 형태소는 ‘영희, 책, 집, 학교’이고

의존 형태소는 ‘~는, ~을, ~에, 놓~, ~고, ~에, 가~, ~쓰, ~다’

실질 형태소는 ‘영희, 책, 집, 놓~, 학교, 가~’이고

형식 형태소는 ‘~는, ~을, ~에, ~고, ~에, ~쓰, ~다’이다.

따라서 의존이며 실질형태소는 ‘놓~, 가~’이다.

8.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 ① (같은 반 친구에게) 철수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
- ②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 ③ (점원이 손님에게) 전부 합쳐서 6만 9천원 되시겠습니다.
- ④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서) 할아버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 혁명국어 기유문 ‘12. 높임법과 높임말(어휘)’ 유형이다.

높임법과 높임말의 쓰임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④

‘말씀’은 높이는 의미와 낮추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높임의 예) 선생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하시지요.

낮춤의 예)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오답피하기

① 교무실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이므로 ‘오라고 하셨어’(오라셔)를 써야 한다.

‘오시래’는 ‘오시라고 해’의 준말로

주체 ‘선생님’이 서술어 ‘해’와 호응하고, 객체인 ‘철수’와 ‘오시라고’가 호응하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주체 ‘선생님’은 서술어 ‘하셔’와 호응하고 객체인 ‘철수’는 ‘오라고’와 호응하는 ‘오라고 하셔’가 맞는 문장이므로 준말인 ‘오라셔’가 옳은 문장이다.

② 선생님, 저는 김해 김가입니다.

윗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성은 ‘김씨’가 아닌 ‘김가’로 말해야 한다.

③ (점원이 손님에게) 전부 합쳐서 6만 9천원 되겠습니다.

주체 높임법 중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관한 문제로,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은 ‘손님’이 아니라 ‘돈의 액수’이므로 간접 높임에 해당하므로 ‘되시겠습니다’가 아닌 ‘되겠습니다’가 옳은 표현이다.

9. 밑줄 친 단어 중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불 좀 죄어야겠구나.
- ② 선배님, 다음에 배요.
- ③ 점점 목을 죄여 오는 느낌이야.
- ④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고는 좋지 않아.

9. 혁명국어 기유문 ‘04. 한글 맞춤법 / 표준어(문법)’유형이다.

본말과 준말, 용언의 활용에 따른 어문 규정을 묻는 문제이다.

정답: ③

기본형 ‘조이다’의 활용형 ‘조이어’를 준말로 표현하면 ‘죄어’, ‘조여’가 된다.
따라서 ‘죄여’는 옳지 않은 표기이다.

오답피하기

①기본형 ‘조이다’의 활용형 ‘조이어야겠구나’의 준말은 ‘죄어야겠구나’로 옳은 표현이다.

②기본형 ‘되다’의 활용형 ‘뵈어’의 어미 ‘-어’ 뒤에 존칭을 나타내는 조사 ‘-요’가 붙어 ‘뵈어요’가 되며 그 준말이 ‘배요’이므로 옳은 표현이다.

④기본형 ‘되다’의 활용형을 묻는 문제이다.

‘돼라’는 ‘되-’에 ‘-어라’라는 어미가 결합하여 준 말로 《한글 맞춤법》 제35 항 [붙임2]에 따라 ‘되-’ 뒤에 ‘-어, -었-’이 아울러 ‘내,’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 표현이다.

이 규정에 따라 ‘되어, 되어서, 되어야, 되었다’가 준 말은 ‘돼, 돼서, 돼야, 됐다’와 같이 적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의 ‘되라’는 ‘되-’에 명령을 나타내는 ‘-(으)라’가 결합한 말이므로 ‘돼’로 적지 않는다. 이때는 ‘되어라’로 대치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될 대로 되어라’는 잘못된 활용이므로 이 선택지의 문장은 ‘되-’+‘-(으)라’가 결합한 ‘되라는’이 옳은 표기이다.

10. 다음에 제시된 단어를 사전 등재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ㄱ. 가름하다.
ㄴ. 개울
ㄷ. 게
ㄹ. 까다
ㅁ. 겨울

-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ㄴ - ㄹ - ㄷ - ㅁ
③ ㄴ - ㄱ - ㄷ - ㅁ - ㄹ
④ ㄴ - ㄱ - ㅁ - ㄷ - ㄹ

10. 혁명국어 기유문 ‘01. 언어와 국어(문법)’유형이다.

사전 등재 순서를 묻는 문제로 자음보다는 모음의 순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모음의 사전 등재 순서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정답:③

11.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언어순결주의자들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한다. 그들은 국어의 어휘가 외래어에 감염되어 있다고 개탄하고, 국어의 문체가 번역 문투에 감염되어 있다고 지탄한다. 나는 국어가 혼탁하다는 그들의 진단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혼탁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 국어의 혼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외판섬에 이상향을 세우고 쇄국의 빗장을 지르지 않는 한 국어의 혼탁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내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하지 않는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불순함의 옹호자이기 때문이다. 불순함을 옹호한다는 것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의 단색 취향, 유니폼 취향을 혐오한다는 것이고, 자기와는 영 다르게 생겨 먹은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른바 토박이 말과 한자어(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일본산이든)와 유럽계 어휘(영국제이든 프랑스제이든)가 마구 섞인 혼탁한 한국어 속에서 자유를 숨 쉰다. 나는 한문 투로 휘어지고 일본문투로 굽어지고 서양 문투로 많은 한국어 문장 속에서 풍요와 세련을 느낀다. 순수한 토박이말과 토박이 문체로 이루어진 한국어 속에서라면 나는 질식할 것 같다. 언어순결주의, 즉 외국어의 그림자와 메아리에 대한 두려움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박해, 혼혈인 혐오, 북벌(北伐), 정왜(征倭)의 망상까지는 그리 먼 걸음이 아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화’의 충동이란 흔히 ‘죽임’의 충동이란 사실이다.

- ① 혼탁, 불순, 감염, 섞임
- ② 자유, 풍요, 세련, 순결
- ③ 외판섬, 쇄국, 빗장, 북벌
- ④ 단색, 유니폼, 순화, 전체주의

11. 혁명국어 기유문 ‘17. 비문학의 독해(독해-비문학)’유형이다.

비문학의 독해는 수험생 자신의 기본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지문만으로 파악해야 한다. 일부 보편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단어나 문장, 주장이 있다하더라도 주어진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정답:①

첫 단락에서 ‘언어순결주의자들은 국어의 혼탁을 걱정한다.’와 ‘나는 국어가 혼탁하다는 그들의 진단에 동의한다.’를 통해 ‘혼탁’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는 듯했으나, ‘그 혼탁을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부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국어의 혼탁을 막을 길은 없다.’를 전제로 하여 ‘내가 불순함의 옹호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하며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과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불순함’이란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언어를 통해 속박과 자유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인 ‘외판섬, 쇄국, 빗장, 북벌, 단색, 유니폼, 전체주의’는 속박의 의미로 사용되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순화’와 ‘순결’도 속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혼탁, 불순, 감염, 섞임’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자유, 풍요, 세련’과 함께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12. 밑줄 친 단어와 문맥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① 관찰하고
- ② 예언하고
- ③ 간주하고
- ④ 전망하고

12. 혁명국어 기유문 ‘10. 문맥적 의미’ 유형이다.

보기 제시문의 ‘보고’의 의미를 문맥에 맞게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정답:④

전망하다: 1. 넓고 먼 곳을 멀리 바라보다.

2. 앞날을 헤아려 내다보다.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 효과를 ~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로 되어 있어 이 때의 ‘보고’는 ‘전망하다’의 2의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오답피하기

관찰하다: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다.

예언하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다.

간주하다: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13.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나를 흠발로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늙어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① 높임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공감각적 비유로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13. 혁명국어 기유문 ‘20. 현대시(독해-문학)’ 유형이다.

현대시의 이해를 묻는 문제로 ‘어조, 공감각적 표현, 수미상관, 개념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이다.

정답:②

공감각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 높임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짓밟습니다, 건너갑니다’ 등의 경어체의 높임법을 활용하여 희생적 태도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의 2행을 시의 처음과 끝에 배치하여 형태적 안정감과 내용상의 강조를 나타내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두 제재의 속성과 관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룻배, 행인’이라는 제재의 속성을 이용하여 희생적 태도라는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14. 다음 작품을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뒤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 ① 시인의 의지적 삶이 곳곳에서 느껴져.
- ② '눈'과 '기침하는 행위'의 상징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어.
- ③ 시인은 죽음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
- ④ 4.19 혁명 이후, 강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작품인 것 같아.

14. 혁명국어 기유문 '20. 현대시(독해-문학)' 유형이다.

시의 감상의 준거를 묻는 문제이다.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표현론적 관점', 독자에의 영향을 보는 '효용론적 관점', 창작의 시대배경을 보는 '반영론적 관점'의 외적 준거와 작품 자체만을 감상기준으로 삼는 '절대주의적 관점'의 내적 준거를 알고 있는 수험생이었다면 쉬운 문제이다.

정답:②

시어의 상징성을 파악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의 내적 준거이다.

오답피하기

- ① 시인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표현론적 관점'의 외재적 준거이다.
- ③ 시인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표현론적 관점'의 외재적 준거이다.
- ④ 창작 당시의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반영론적 관점'의 외재적 준거이다.

15. 밑줄 친 단어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석가나 예수는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 주며, 그들을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다. 그러기에 길지 아니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 ① 형상(形象)
- ② 상념(想念)
- ③ 업적(業績)
- ④ 후예(後裔)

15. 혁명국어 기유문 ‘09. 사전적 의미(한자어)’와 ‘10. 문맥적 의미’의 혼합 유형이다.

‘그림자’는 문맥적 의미로 봤을 때,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특징의 의미로 한자어 ‘업적(業績)’에 해당한다.

정답:③

업적(業績): 어떤 사업이나 연구 따위에서 세운 공적.

오답 피하기

- ① 형상(形象) :1.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2.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 ② 상념(想念):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 ④ 후예(後裔):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의 자녀를 통틀어 이르는 말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칠수: 그렇다고 껌 값 모아 재벌 되냐? 그래 매달 오만원씩 적금 넣고 몇 만 원씩 갯돈 붓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직실에서 몽개면 너 환갑 때쯤 돈 몇 천만 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그 돈으로 집 한 채 장만 못 해. 넌 틀렸어. 임마. 야! 너 전에 이 씨 알지? 서울역 앞에서 가스 환기통 해 주던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 별명이 뭔지 아냐? 소야, 소! 정말 그 아저씨 여태 돈 모으는 재미 하나로 살았다. 일만 있으면 지방으로 산꼭대기로 어디든지 밧줄 메고 찾아갔어. 그러다가 십 몇 년 만에 그럴듯한 연립하나 장만했지. 근데 그동안 너무 못 먹고 과로했는지 몸을 버렸나 봐. 하여튼 비쩍비쩍 마르고 빌빌하기에 우리가 끌고 병원에 갔다. 간경화래! 중중이더라구. 근데 그 아저씨 겨우 장만한 집 한 채 병원비로 다 날리고 다 죽네. 어찌네, 해서 병원에서 그냥 나왔어. 눈만 안 감았지. 몸은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라 가지고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야. 야! 근데 그 아저씨 지금 뭐라는 줄 아냐? 세상 미련하게 살았다! 알긋냐? 몸 팔아서 번 돈 다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식아

-오종우, '칠수와 만수'중에서-

- ① 칠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
- ② 칠수의 대화 상대는 착실하고 검소한 사람인 것 같아.
- ③ 칠수는 다른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상대를 설득하고 있어.
- ④ 칠수는 시종일관 강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 하고 있어.

16. 혁명국어 기유문 '22. 회곡 / 시나리오(독해-문학)' 유형이다.

회곡은 대화로 이루어진 글이므로 그 대화의 기능과 전개양상을 묻는 문제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정답:①

'껌 값', '장작개비처럼' 등의 비유적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인물에 대한 비유이지, 현실을 비판하는 비유로 쓰이지는 않았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나, 선택지의 연결에서 인과적 구성을 찾기는 힘들다.

오답 피하기

- ② '껌 값 모아 재벌 되냐? 그래 매달 오만원씩 적금 넣고 몇 만 원씩 갯돈 붓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직실에서 몽개면 너 환갑 때쯤 돈 몇 천만 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았지?'로 보아 칠수의 대화상대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③ '너 전에 이 씨 알지?'를 통해 성실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나타내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재벌 되냐? ~ 자식아'를 통해 강한 어조임을 알 수 있다.

17. 밑줄 친 한자성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어요.
- ②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감싸 안아 줘요.
- ③ 고생하다 돌아가신 어머니님 생각에 풍수지탄(風樹之嘆)을 금할 수가 없어.
- ④ 자존심이 강한 그이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불치하문(不恥下問)할 줄 알아.

17. 혁명국어 기유문 ‘11. 고사성어(어휘)’ 유형이다.

선택지의 문맥을 통해 정확한 고사성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②

읍참마속(泣斬馬謖)이란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을 이르는 말’로 ‘감싸 안아줘요’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①견마지로(犬馬之勞):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 ③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 ④불치하문(不恥下問): 손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18.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은?

- ① 살다 보면 별 희안한 일이 다 생기지요.
- ② 고향에서 온 편지를 뜯어본 그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 ③ 이렇게 심하게 아픈 줄 알았더라면 진즉 병원에 가 볼 것을 그랬다.
- ④ 그가 것처럼 흥척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18. 혁명국어 기유문 ‘04. 한글 맞춤법 / 표준어(문법)’ 유형이다.

혼동하기 쉬운 표준어를 숙지하는 문제이다.

정답:③

‘진즉’은 ‘좀 더 일찍이’의 의미로 비슷한 말에 ‘진작’이 있다.

단 ‘진작에’는 비표준어이다.

오답 피하기

① 희안한 → 희한한

‘희한하다’는 ‘매우 드물거나 신기하다.’는 의미로 ‘稀罕--’의 한자어이다.

② 착잡하다 → 착잡하다

‘착잡하다’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뒤섞여 어수선하다’는 의미로 비슷한 말에 ‘잡착하다’가 있다. 거센소리 표기에 주의할 어휘이다.

④ 흥척스러운 → 흥측스러운

전설모음화는 표기로도 발음으로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처결하기를, 집안의 살림살이 전권(全權)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주부 고 씨는 제쳐놓고서 한 대(代)를 경충 건너뛰어 손주 대로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고 씨의 며느리 되는 박 씨 즉, 윤직원 영감의 만손자 며느리가 시할머니의 뒤를 바로 이어서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로 들어앉아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 살림을 해 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 씨는 고만개밥에 도토리가 되어 버리고, 도리어 시어머니 오 씨 대신에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끔 된 셈평이었습니다.

- ① 윤직원 영감은 실망이 컸겠군.
- ② 시할머니는 자애로운 분인 것 같아.
- ③ 박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집왔겠군
- ④ 고 씨의 현재 심경은 아주 절망적일 거야

19. 혁명국어 기유문 ‘21. 현대소설(독해-문학)’ 유형이다.

소설의 등장인물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통해 인물의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답:④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 살림을 해 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 씨는 고만개밥에 도토리가 되어 버리고~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끔 된 셈평이었습니다.’로 보아 고 씨는 기대했던 상황이 이루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처결하기를’로 보아 지문내의 내용은 윤직원 영감의 결정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윤직원의 실망과는 관계가 없다.
- ② 고 씨의 상황은 윤직원 영감의 처결에 따른 것이므로, 시할머니의 성격은 알 수가 없다.
- ③ 박 씨의 집안 환경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20. 다음 글에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의 대사 및 감정 등을 관객에게 설명했던 변사가 등장한 것은 1900년대의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변사가 있었지만 그 역할은 미미했을뿐더러 그마저도 자막과 반주 음악이 등장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 하지만 주로 동양권,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변사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한국에서 변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인데, 한국 최초의 변사는 우정식으로, 단성사를 운영하던 박승필이 내세운 인물이었다. 그 후 김덕경, 서상호, 김영환, 박응면, 성동호 등이 변사로 활약했으며 당시 영화 흥행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었다. 단성사, 우미관, 조선 극장 등의 극장은 대개 5명 정도의 변사를 전속으로 두었으며 2명 내지 3명이 교대로 무대에 올라 한 영화를 담당하였다. 4명 내지 8명의 변사가 한 무대에 등장하여 영화의 대사를 교환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한 명의 변사가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영화가 점점 장편화되면서부터는 2명내지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변사는 악단의 행진곡을 신호로 무대에 등장하였으며, 소위 전설(前說)을 하였는데 전설이란 끝나면 활동사진을 상영하고 해설을 시작하였다. 변사는 전설과 해설 이외에도 막간극을 공연하기도 했는데 당시 영화관에는 영사기가 대체로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필름을 교체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코믹한 내용을 공연하였다.

- ①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변사가 막간극을 공연했다.
- ② 한국에 극장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이었다.
- ③ 한국은 영화의 장편화로 무대에 서는 변사의 수가 늘어났다.
- ④ 자막과 반주 음악의 등장으로 변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20. 혁명국어 기유문 ‘17. 비문학의 독해(독해-비문학)’ 유형이다.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를 묻는 사실적 사고영역의 문제이다.

이런 유형은 지문을 한꺼번에 다 읽고 선택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으면서 선택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정답:③

‘한국에서는 한 명의 변사가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영화가 점점 장편화되면서부터는 2명내지 4명이 번갈아 무대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에서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변사가 막간극을 공연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 변사는 전설과 해설 이외에도 막간극을 공연하기도 했는데~’로 보아 알 수 있다.

② 한국에 극장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경이었다.

‘한국에서 변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극장가가 형성된 1910년부터인데’로 알 수 있다.

④ 자막과 반주 음악의 등장으로 변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자막과 반주 음악이 등장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로 알 수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에서는 변사의 존재가 두드러진다 하였으나 주어진 선택지에는 전체적인 변사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한국의 상황을 근거로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